

복음과 상담  
제21권, 156-189

## 동반의존자의 하나님 이미지 회복을 위한 기독교상담 방안 연구

안 은 숙\*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동반의존자의 하나님 이미지 회복을 위한 기독교상담 방안을 모색함에 있다. 연구 내용으로는 첫째, 동반의존자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통해 동반의존의 본질과 함께 심리학적 이해를 한다. 둘째, 하나님, 부모 및 자타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동반의존자의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더불어 대상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를 하고, 하나님 이미지 진단의 목적과 의미를 생각해 본다. 셋째, 성경적, 심리학적 관점과 자료를 아우르며 동반의존자의 하나님 이미지 회복을 위한 기독교상담 방안을 모색한다.

위에서 언급된 연구 내용에 근거한 연구 결과는 첫째, 동반의존자의 핵심문제는 자아 정체성의 상실과 의존적 관계성에 있으며, 그 본질은 인간의 죄와 우상숭배다. 둘째, 하나님 이미지는 부모의 모습이 하나님께 투영된 것으로 자기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고착된 것이 아니라 변화(재형성)될 수 있다. 셋째, 동반의존자의 하나님 이미지는 신앙과 삶의 괴리를 가져오며, 영적-신앙적 성숙에 장애가 된다. 넷째, 하나님 이미지는 기독교 상담의 진단 도구로서 가치가 있다. 다섯째, 기독교 상담 방안은 궁극적 타자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자타와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관계 회복이며, 이는 영적 성숙, 곧 성경적 하나님의 정확한 이미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다.

**중심단어** : 동반의존자, 하나님 이미지, 회복, 영적 성숙, 기독교 상담

• 논문 투고일: 2013년 10월 17일

• 논문 수정일: 2013년 11월 2일

• 게재 확정일: 2013년 11월 11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I. 여는 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다양한 중독에 노출된 중독의 시대이다. 도박 중독자는 2012년 350만 명에 이르고, 미래창조과학부의 '2012년 인터넷 중독 및 스마트폰 중독 실태 조사'<sup>1)</sup>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자는 전체 인구의 7.2%(360만 명), 스마트폰 중독자는 11.1% (555만명)에 육박하며, 2013년 알코올 중독자의 숫자는 180만 명으로 발표되었다.<sup>2)</sup> 이처럼 많은 중독자와 중독자의 가족 구성원인 동반의존자들이 현재 중독이라는 고통에 직면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 동반의존자란 중독자의 배우자나 자녀를 포함한 중독자 가족 구성원 모두를 지칭하며, 동반의존은 중독자와 같이 살면서 생긴 병적 의존현상이다.

동반의존자의 하나님 이미지는 중독자인 부모와의 관계가 내면화된 것으로 부모의 모습이 하나님께 투영되어 형성된 것이다. 이는 부모의 비난과 학대로 인한 낮은 자존감과 더불어 병적인 의존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억압한 결과 형성된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자아 정체성)를 반영한다. 동반의존자의 하나님 이미지는 인간의 왜곡된 인지와 정서의 부조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양가감정을 반영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 장애가 되며 신앙발달을 방해한다. 동반의존자의 하나님 이미지는, “잔인하며 지나친 요구를 하며, 거리가 먼 선별적인 하나님, 죄를 책망하시고 기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혼동스러운 하나님, 도리에 맞을 때만 칭찬하시는 하나님, 인내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sup>3)</sup>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로서 하나님, 자타, 부모 및 세상에 대한 왜곡된 이해와 평가를 시사한다. Michael St. Claire는

1) 2012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미래창조과학부, 2013).

2) “2013년 알코올 중독자 실태조사”, MBC 뉴스데스크, 2013. 9.13.

3) 고병인, 『중독자 가정의 가족치료-역기능 가정 성인아이 치유의 기독교적 접근』, (서울: 학지사, 2008), 144-154.

성인들의 종교경험에 대한 4가지 입장을 언급하였다; “나는 신을 믿는다. 나는 신을 믿을 수도 있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나는 신을 믿지만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sup>4)</sup> 동반의존자의 하나님 이미지 유형은 “나는 신을 믿지만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양가감정적 입장에 속한다. 영적-신앙적 성숙을 방해하는 동반의존자의 이러한 양가감정적 하나님 이미지는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

이러한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 자타 및 부모와의 관계 회복을 통한 자기 이미지, 부모 이미지 및 하나님 이미지의 치유와 회복을 의미하며, 이는 성경에 근거하여 신체-심리사회-윤리영적 성숙과 회복의 관점 및 자원을 아우르는 기독교상담 방안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 II. 펴는 글

### 1. 동반의존의 이해

#### 1) 용어 정의

동반의존(co-dependency)이라는 용어의 시작은 A.A(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친목모임)설립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A.A는 알코올 중독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성공했지만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에 의존해 있었던 것과 같이 그 가족들이 알코올 중독자에게 매우 의존하고 있음”<sup>5)</sup>을 알게 되었다. 동반의존이라는 용어는 한국에서 ‘동반의존(성)’, ‘중속의존(성)’,

4) Michael St. Claire, *Human Relationships and the Experience of God*, 이재훈 역, 『인간의 관계 경험과 하나님 경험: 대상관계 이론과 종교』(서울: 한국 심리치료연구소, 1998), 43.

5) Robert Hemfelt, Frank Minirth, & Paul Meier, *Love is Choice: Recovery from Codependent Relationship*, 양은순 역, 『사랑은 선택』(서울: 열린 책들, 1992), 14-16.

‘편향적 의존(성)’, ‘내면적 속박’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동반의존은 병리적인 의존성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건강하고 바람직한 의존성을 지칭하는 상호의존과 반대되는 용어다. 동반의존은, “자신의 안전이나 자기 가치감과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시도 속에서 강박적 행동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얻는데 고통스럽게 의존하는 형태”<sup>6)</sup>이며, 중독자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로서 이러한 욕구를 가진 사람을 동반의존자라고 정의한다.

동반의존은 정체성의 상실과 함께 낮은 자존감과 상처받은 자기 가치감을 보상받기 위해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의 인정에 집착하며 타인에게 감정적, 심리적, 행동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하는 관계중독으로, 친밀감 형성, 경계선 설정, 사고와 감정의 적절한 표현, 적응적 행동 및 건강한 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동반하는 신체-심리사회-윤리영적 질병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를 배경으로 동반의존자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하고자 한다.

## 2) 동반의존자에 대한 성경적 이해

동반의존자의 핵심 문제는 자기 정체성의 상실과 의존적 관계성에 있다. 이에 인간의 성경적 정체성, 동반의존자의 의존적 관계성, 사랑과 희생 및 동반의존의 본질을 이해한다.

### (1) 성경적 정체성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 사회적인 존재, 그리고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창 1:26-28). 첫째, 인격적인 존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 인격적인 존재라는 말은 지식과 느낌과 의지(뜻)

6) Sharon Wegscheider-Cruse & Joseph R. Cruse, *Understanding Co-Dependency*, 김영희 역, 『중독의 뜻 이해하기』 (서울: 이레서원, 2008), 27, 52-81.

를 가졌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인격으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다스릴 책임이 부여된 사회적인 존재라는 의미이다. 둘째, 사회적인 존재: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 상호 연합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지음 받은 사회적인 존재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참된 관계의 모델을 제시하며, 인간의 삶의 본질은 관계라는 것과 인간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관계성을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하나님과 서로에게 의존된 관계로 지음 받은 사회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땅위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책임이 있다. 셋째, 다스리는 존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지배권을 위임받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되었다(창 2:15-20; 시 8:5-8; 삼하 12:30; 에스더 8:15; 시 21:4; 스펀 16:11-14; 수 12:2; 살 8:22-23).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의 절대적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다면, 반면 인간들에게는 제한적인 통치권이 위임되어 있다.”<sup>7)</sup>

인간은 인격적, 사회적인 존재이며 지배권의 한계가 부여된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받았으며,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를 스스로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여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그러나 죄로 타락한 이후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된 관계로부터 독립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어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 보유자가 되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서로와의 관계에서 소외된 인간은 관계의 갈망과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채 원초적 상실과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을 찾게 되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간관계로 대치하려는 시도로서 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진정한 정체성과 관계성의 회복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 곧,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완벽한 하나님의 형

7) 최홍석, 『인간론』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2010), 77.

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 정서, 행동을 닮아가며 이루어지는 하나님 형상의 회복(롬 8:29; 골 1:15; 빌 3:21; 골 3:9-10; 엡 4:22-24)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 이차적으로 자신과의 관계성 및 인간 상호간의 관계성의 회복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관계의 해결책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오직 예수님 한 분 만이 우리의 동기와 욕망을 매만지실 수 있다.”<sup>8)</sup>

### (2) 동반의존자의 의존적 관계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의 성경적 정체성에 비추어 볼 때 동반의존자의 병적인 의존 관계의 뿌리는 성경적 정체성의 상실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인간의 욕구와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의존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집착하고 의존하는 마음의 태도에 있다. 창조주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로서 자족하는 분이므로 전적으로 독립적인 존재이신 반면, 피조물인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서 신체-심리-사회-윤리영적인 모든 필요와 욕구들을 하나님께 의존함으로써 공급받도록 지음 받은 의존적 존재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 맺도록 지음 받은 인간의 의존성이다. 그러나 동반의존자의 왜곡된 정체성과 관계성은 인간의 의존성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동반의존자의 관계성의 특징 중 하나인 융합적인 사랑과 지나친 희생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생각해 본다.

### (3) 동반의존자의 사랑과 희생

동반의존성은 그릇된 동기로 사랑하고 희생하며 돌보려는 타락한 인간의 관계성에 기인한다. 동반의존자의 사랑과 희생의 동기는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고, 인정받기 위해 인정하며, 욕구를 채우기 위해 욕구를 채워주며, 의존하기 위해 의존시키는 이기적이며, 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

8) Paul Tripp & Timothy Lane, *Relationships: A Mess Worth Making*, 이명숙 역, 『관계가 주는 기쁨』 (서울: 미션 월드, 2009), 30.

님의 이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대립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일 4:8). 성경에 의하면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며, 이타적이고, 의지적이며, 도덕적이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며(막 8:45; 10:43-45; 요3:16), 그 절정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이다. 사랑의 원리는 서로에 대한 결속(요 13:34-35)이며,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자기를 내어 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이다. “자기를 주는 사랑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모든 관계를 통치해야 한다(고전 13장). 타인을 향한 사랑은 융합(fusion)이 아니라 사람 간의 연합(unity)<sup>9)</sup>이다. 그러나 동반의존적 사랑은 연합이 아닌 융합의 사랑이며, 타인의 유익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 조건적, 자기 충족적, 자기 숭배적 사랑이며,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통제하고 조종하며, 상대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지 못하며, 지나친 희생을 하는 빛나간 과잉 보호적 사랑이다. 그리하여 건강한 심리사회-윤리영적 발달을 가로 막아 정체성의 확립을 방해하고 하나님 및 자타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어렵게 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건강한 타인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한 건강한 자기 사랑이다(마 22:39; 례 19:18).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킨다.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을 통해 채워지는 자존감에 대한 욕구 충족은 자존감, 자기 가치감, 자기 사랑 및 타인 사랑으로 이어진다. 성경적 의미에서 자기 사랑은 성경이 경고하는 인본주의적인 자기 사랑(딤후 3:1-5) 또는 교만에서 비롯된 자기애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의존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자기 사랑이며, 자기 사랑의 실천과 표현은 자기주장이다. 자기 사랑은 거짓 자아가 참 자아로 변화되는 자기 변화를 의미하며, 상대를

9) Robert Banks, “The Biblical Approach to Community,” *Christian Education Journal* 13, no. 3(2004): 24.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사랑이 아니라 타인의 성장과 성숙에 유익을 주며, 타인의 변화를 도모하는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한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이다. “의지적인 사랑은 우리의 의지와 적극적인 선택의 반응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것은 도덕적인 가치를 사랑하는 의도적인 선택이다.”<sup>10)</sup> 의지적인 사랑은 의도적인 선택과 책임을 강조한다. 사랑은 인지적, 정서적, 의지적 요소의 통합이며, 통합되지 못한 사랑은 건강하지 않은 양가감정적이고 융합적인 사랑을 낳는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본질적인 실체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랑을 함에 있다(요일 4:7-21).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자타를 올바르게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으며, 대인관계에서 타인의 사랑과 인정에 강박적으로 집착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요 8:32, 36). 진정한 사랑은 선택, 책임, 희생, 의지,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사고, 감정, 의지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된 사랑이다. 통합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자타의 성장과 성숙을 돕는 행동과 실천을 가져오며 하나님 및 자타를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 구현된다. 그러나 동반의존적 희생과 사랑은 성경이 보여주는 이러한 진정한 사랑과 대립되며, 그 본질은 타락한 인간의 죄요 우상 숭배다.

#### (4) 동반의존의 본질

첫째, 동반의존의 본질은 인간의 죄다: 죄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왜곡으로 인한 타락의 산물이다. 죄의 속성은 인간을 유혹하고 속박하며 파괴시키는 마음 속에 작용하는 사단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를 무력화한다. 이러한 죄의 힘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 속에 거하며(롬 7:20), 탐욕

10) Tom Marshall, *Right Relationships*, 채두병 역, 『깨어진 관계의 극복』 (서울: 예수전도단, 1998), 40.

을 조장하고(롬 7:8), 기만한다(롬 7:11). “동반의존은 죄가 가지고 있는 고립으로 인한 관계의 파괴성, 자유의지의 남용,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더 절대시하는 반역적 교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평화를 깨뜨린다. 죄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살롬을 파괴하며, 사람 사이에 분리와 소외를 가져온다.”<sup>11)</sup> 동반의존은 하나님께 의존된 관계로 지음 받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로 대치시켜 사람과의 관계를 절대시하면서 하나님 및 자타와의 살롬의 관계를 깨뜨림으로써 분리와 소외를 가져오는 죄다. 동반의존적 죄의 동기는, “하나님과 무관한 방법들로 영적 열망을 만족시키고자”<sup>12)</sup>함에 있으며, 하나님이 아닌 것에 의존하고 집착하면서 거기서 궁극적인 만족을 찾으며,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망을 대체하고자 하는 영적 빈곤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한다. 죄가 관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방식은, “결속 과정을 혼란하게 한다. 경계가 무시된다. 선과 악의 특징을 가진 전인으로서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한다. 성인으로 성숙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sup>13)</sup> 죄의 방식은 완전주의, 이상화, 수치심 및 편파적인 관점으로 말미암아 친밀한 관계 발달을 해친다. 동반의존이라는 죄는 주로 반역,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통제력 상실과의 결속으로 이루어지며(창 3장), 하나님과 서로와의 관계적 결속과 친밀감을 약화시키고 경계선을 무너뜨리며 영적-신앙적 성숙을 방해한다.

둘째, 동반의존의 본질은 우상 숭배다: 동반의존은 집착하는 사람이나 사물들을 숭배하도록 강요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을 자유롭게 사랑하는 것을 방해한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동반의존은 하나님 사랑보다는 사람 사랑을 우선순위에 두며, 하

11) 김병오, 『중독을 치유하는 영성』 (서울: 이레서원, 2003), 33-34.

12) Gerald May, *Addiction and Grace*, 이지영 역, 『중독과 은혜』 (서울: InterVarsity Press, 2005), 119.

13) Henry Cloud & John Townsend, *Boundaries*, 차성구 역, 『No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서울: 좋은 씨앗, 2005), 71-77.

나님 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사랑과 인정의 욕구를 집착하는 대상으로부터 얻고자 사람에게 집착하게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대치시키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다. 동반의존자의 집착의 배후에는 탐욕이 있는데, 바울은 탐욕을 가리켜 우상숭배라고 한다(골 3:5-16). 인간이 하나님 보다 피조물을 우선시하는 것은 모든 우상 숭배의 영적인 뿌리다(롬 1:18-23). 동반의존은 자기 유익에 집착하는 탐욕적 자기숭배이며, 이러한 집착은 집착하는 대상을 우상숭배하게 하는 밑거름이다. 또한 우상은 인간의 외부가 아닌 내부 곧, 마음 속에 존재하며, 마음의 우상은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공모한다. 따라서 우상숭배는 마음의 문제이며, 그 실체는 우상을 숭배한다기 보다는 자신의 필요와 욕구 충족을 위해 우상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것이다(왕상 18장). 우상 숭배의 이유는, “우상들이 힘을 가지고 있음을 감지하기 때문이다.”<sup>14)</sup> 동반의존의 본질은 하나님의 힘(통제력)을 얻기 위해 사람이나 물질이라는 우상의 힘에 의지하고 굴복하는 우상숭배다.

지금까지 논의된 동반의존자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종합해 보면 동반의존자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왜곡되고 변질된 사랑이며, 집착하는 대상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려는 강박적 욕구를 가진 사람중독이요 관계중독이며 사랑중독이자 돕는 중독으로, 그 본질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요, 우상숭배다. 동반의존자에 대한 이러한 성경적 이해와 함께 심리학적 이해를 하고자 할 때 5가지 이론적 모델에 따른 심리학적 관점과 개념을 중심으로 한다.

### 3) 동반의존자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

동반의존에 대한 다양한 심리학적 관점에 따른 이론적 모델을 크게 5가지로 범주화하면 정신역동적, 의학적, 가족체계적, 종교적, 그리고 통

14) Edward T. Welch, *When People are Big and God is Small* (Phillipsburg, NJ.: P & R, 1997). 45.

합적 모델로 분류할 수 있다.

(1) 정신역동적 모델: 동반의존에 대한 정신역동적 모델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연구자는 John Bradshaw이며, 이 모델은 자아 정체성의 상실과 낮은 자존감의 관점에서 동반의존을 바라본다. “동반의존은 정서적, 신체적, 성적 폭력으로 가득 차 있는 역기능 가족의 구성원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외부에 있는 어떤 것들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sup>15)</sup>이다. 동반의존자들은 자기를 상실한 채 자신을 위한 삶보다는 타인의 가치와 기준에 맞추어 살아간다. 정서적, 신체적, 성적 학대, 유기 및 수치감 등으로 인해 자기 가치감의 상처를 입은 내면의 아이는 사랑과 인정 받는 일에 몰두한다. 그리하여 사물이나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집착하면서 오직 중독자와 가족을 통제하고 돕는 일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삶을 소모하며, 주변 사람들로 부터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간다.

(2) 의학적 모델(질병 모델): 의학적 모델에서는 동반의존자를 병든 사람으로 보고, 유전적 구조와 요인에 주목하며 신경학적, 생리학적 및 행동주의적 접근을 한다. 대표적인 연구자로 Sharon Wegscheider-Cruse와 Timmen L. Cermak을 들 수 있다. 동반의존은, “가장 강박적인 기분 전환적 행동과 기분 전환 물질에 의해 사람들의 몸, 마음 및 영이 무능해지고, 그에 따른 유해한 결과를 낳게 되는 만성적이며, 진행적인 질병으로서 성격장애 이전 단계(pre-personality disorder)이다.....동반의존자의 행동들은 내면화된 감정적 고통의 산물로서 인간의 뇌에 머무르는 사고와 감정과 행동들의 퇴적물”<sup>16)</sup>이다. Cermak은 동반의존을 DSM-IV의 기준에 따라 인격장애의 한 형태로 파악하고 정체성과 경계선 장애로 이해하며, “친밀과 분리를 둘러싼 불안과 경계의 왜곡 등

15) John Bradshaw, *Inner Child*, 오제은 역,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서울: 학지사, 2004), 32-34.

16) Cruse & Cruse, *Understanding Co-Dependency*, 18-20.

충동 조절 장애”<sup>17)</sup>로 본다. 동반의존은 타인의 요구나 행동만을 중요시 하는 자기 상실이 초래한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그리고 영적 질병으로 간주된다.

(3) 가족체계적 모델: 가족체계 모델은 동반의존을 역기능적 가족체계 갈등의 산물로 보고 동반의존자를 희생자로 보며, 가족들의 동시 치료를 위해 역기능 가정의 구조, 기능, 역할, 규칙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다. 대표적 연구자로 Pia Mellody가 있다. Pia Mellody는 동반의존자의 감정적, 심리적 상태에 대해 수치감, 부적절감 및 열등감을 양산하는 역기능적 가족체계에 주목한다. “동반의존의 핵심에는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수치감, 부적절감, 열등감, 낮은 자존감을 양산하는 학대하는 부모가 있다.”<sup>18)</sup> 이 모델은 동반의존을 정서적, 심리적으로 학대적이거나 원 칙주의적이고 경직된 가족 체계에서 발달할 가능성이 높으며, 생물학적 스트레스, 심리내적, 역기능적 가족체계 및 윤리-영적 갈등이 축적 된 가족체계의 산물로서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되는 가족 질환으로 바라본다.

(4) 종교적 모델: 이 모델은 동반의존을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은 죄요, 우상숭배로 바라보며 도덕적 가치와 행동에 주목한다.

(5) 통합적 모델: 통합적 모델은 동반의존을 인간의 신체적인 영역에서부터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는 신체-심리사회-윤리영적 질병이며, 죄요 우상숭배로 본다. “통합 모델은 상담 개입 계획을 수립하는 것 뿐 아니라,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을 포함하며..... 변화의 메타 차원은.....주로 정서적인 영역에 초점을 두거나, 주로 중

17) Timmen L. Cermak, *Diagnosing and Treating Codependency: A Guide for Professionals Who Work with Chemical Dependents, their Spouses and Children* (Minneapolis: Johnson Institute, 1986), 1-7.

18) Pia Mellody, *Facing Codependence*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 2003), ix-xi.

교적/영적 영역에 초점을 두거나 하는 관점을 지양한다.”<sup>19)</sup> 통합 모델은 메타 차원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증상으로 드러난 생물-심리사회-윤리적 열매 뿐 아니라, 그 뿌리인 영적 본질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이는 성경에 근거하여 심리학적 관점과 자원을 아우르며 생물-심리사회-윤리영적으로 통합적인 접근을 추구하면서 정신역동적, 의학적, 가족체계적 및 종교적 모델의 관점과 자원을 폭 넓게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동반의존자의 하나님 이미지 회복을 위한 기독교 상담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통합적 모델에 따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동반의존에 대한 다섯 가지 이론적 모델의 관점과 개념을 통해 동반의존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를 개괄적으로 하였으며 동반의존에는 신체-심리사회-윤리영적 측면이 모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동반의존자의 하나님 이미지 형성의 근간은 부모와의 관계이며, 이는 자기 이미지를 형성한다. 하나님 이미지는 하나님 및 자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심리사회-윤리영적-신앙적 성숙과 연결된다. 이에 동반의존자의 하나님 이미지 회복을 위한 기독교 상담 방안의 모색을 위해 성경적, 심리학적인 양자의 관점에서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한다.

## 2. 하나님 이미지 이해

### 1)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성경적 이해

“하나님 이미지는 신에 대한 인간의 지각 혹은 표상으로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타내고 있는지를 함축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19) Len Sperry, *Transforming Self and Community*, 문희경 역, 『목회상담과 영성지도의 새로운 전망』(서울: 솔로몬, 2007), 161.

관계라는 측면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다.....이는 인간 속에 있는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측면을 지닌 시각적, 지각적, 감정적, 개념적 요소를 담고 있는 역동적이고 정서적인 표상이다.”<sup>20)</sup> 하나님 이미지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형상’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체험하는 심리적, 경험적 실체로서 정서적이며 개념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을 포함하며,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 생각과 느낌이므로 성경적 하나님과 다른 왜곡된 모습일 가능성이 크다. 왜곡된 하나님 이미지는 왜곡된 자기 이미지와 부모 이미지를 반영한다. 이는 진정한 전도의 대상이다.

(1) 하나님 이미지와 부모 이미지 및 자기 이미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이미지의 완전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되어 있으며, 예수그리스도는 사랑과 용서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이미지로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sup>21)</sup>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적인 하나님 이미지를 보여주는 구원자다. 그러나 죄로 타락한 인간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저마다 자신들이 창조한 신, 곧 하나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타락의 결과 인간은 하나님, 자타 및 세상과 끊임 없는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인간의 인지와 정서는 왜곡되어졌다. 타락의 영향을 받은 부모 및 중요한 타자의 모습은 하나님께 투사되어 하나님 이미지(하나님 이해, 하나님 개념), 부모 이미지(부모 이해, 부모 개념) 및 자기 이미지(자기 이해, 자기 개념)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하나님 이미지, 부모 이미지 및 자기 이미지는 상호작용하면서 신앙 발달과 관계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첫째, 하나님 이미지와 부모 이미지: “부모 이미지는 보편적으로 부모

20) M. S. Saur & W. G. Saur, “Image of God: A Study of Psychoanalyzed Adults,” in *Object Relations Theory and Religion: Clinical Applications*, eds. M. Finn and J. Gartner (Westport, CT.: Praeger, 1992), 130.

21) 김성민, “하나님 이미지와 원형적 그리스도: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그리스도”, 한국 기독교학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24권 (2002): 483.

에 대한 사랑과 미움이 섞여 있으며 이러한 양가감정은 자주 인정되지 않는다. 그럴 경우 부모에 대한 양가감정적 이미지와 유신론적 믿음이 서로 뒤엉켜 결국 ‘분노가 뒤섞인 경외심’이 되어 나타난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중요한 타자에 대해 사랑과 미움의 양가감정이 일어날 때 인간이 수용할 수 없는 적대적 미움의 감정은 억압된다.”<sup>22)</sup> 부모에 대한 사랑과 미움의 양가감정이 하나님께 투사된 하나님 이미지는 부모 이미지다. 양가감정적 하나님 이미지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생각과 감정의 부조화, 의식-무의식 수준의 하나님의 분열, 개념적-기능적 하나님의 갈등, 공식적-비공식적 하나님의 불일치, 성경적-심리학적 하나님의 갈등을 시사하며, 이는 타락한 인간의 죄와 죄성을 반영한다. 양가감정적인 하나님 이미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떨어뜨리며 신앙 발달을 막는다.

둘째, 하나님 이미지와 자기 이미지: 하나님 이미지가 신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John McDargh에 의하면, “신앙은 마음의 논리를 따르며, 마음은 개인의 이미지를 통하여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중요하다. 신앙은 의미를 포함하는데 대상관계 이론가들의 통찰에 의하면 의미는 관계성 속에 존재한다.”<sup>23)</sup> 긍정적이고 자기 건설적인 하나님 이미지는 고통가운데 있는 인간의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이루어내는데 도움을 주는 반면, 부정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하나님 이미지는 절망하고 포기하게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와 자기 가치감을 느끼는 인간은 고통과 위기 가운데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한 채, 자기 이미지가 깨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해 의구심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 가치마저 흔들리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긍정적인 하나님 이미지는 고통과 위기

22) Leroy T. Howe, “Crisis of Belief: An Object Relations Perspective,” *The Journal of Pastoral Care* 14, no.1(1990): 42-53.

23) John McDargh, *Psychoanalytic Object Relations Theory and the Study of Religion* (Lanham, MD.: University of America, 1983), 151-152

속에서도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이루어 내어 삶에 소망을 주는 역할을 하는 치유적인 힘을 준다. 하나님 이미지는 하나님 및 자타와의 관계로 나아가게 도울 수도 있고 후퇴하게 할 수도 있다. 하나님 및 자타와의 관계성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이고 왜곡된 하나님 이미지가 긍정적인 하나님 이미지로 변화되고 회복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신앙적 성숙이다.

## (2) 하나님 이미지의 회복과 영적 성숙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원형을 통합한 자아 실현자이고, 하나님 이미지의 구현으로 본다.”<sup>24)</sup> 하나님 이미지 회복을 위한 기독교상담의 궁극적 목적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의 초점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주관적인 관점으로부터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동하도록 도와 하나님 및 자타에 대한 재해석과 함께 고통을 수용하고, 성경적인 하나님 이미지의 완전한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 정서 및 행동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도모함에 있다. 그 의미는 내담자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 이루어지는 하나님 이미지, 부모 이미지 및 자기 이미지의 치유이며 하나님, 자타, 부모 및 세상과의 관계성의 회복을 의미한다. 이는 곧, 유아적인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의 변화다. 성경적인 하나님 이미지는 궁극적 타자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재형성되고 자기 이미지 변화에 영향을 주며,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자타를 새롭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관점의 변화를 촉진한다. 그리하여 하나님, 자타 및 세상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확립하도록 도우며 영적 성숙을 가속화한다.

Todd W. Hall과 Beth F. Brokaw<sup>25)</sup>의 연구는 대상관계 발달과 하나

24) 김성민, 『분석심리학과 기독교』 (서울: 학지사, 2001), 74-75.

25) Todd W. Hall & Beth F. Brokaw, “Relationship of Spiritual Maturity to Level of Object Relations Development and God Image,” *Pastoral Psychology* 43, no. 6(1995): 373-391.

님 이미지는 영적 성숙에 영향을 미치며 대상관계 발달 수준과 영적 성숙은 비례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Jared P. Pingleton<sup>26)</sup>은 의존과 관계적 성숙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대상관계적 관점에서 성숙한 의존 또는 상호의존은 심리적, 성경적 관점의 성숙을 특징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심리적이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대상관계 발달과 영적 성숙과의 연관성을 논한다는 것은 그 초점을 과거의 정적이고 심리내적인 하나님 표상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의 역동으로 이동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대인관계를 맺는 방식의 심리적 기제와 동일하다는 사실과 심리적-영적인 성숙은 관계적 맥락에서 이해되며 서로 분리될 수 없이 얽혀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하나님, 자타와의 관계 방식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창 1-3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심리사회-윤리영적인 성숙은 씨실과 날실처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성숙은 심리학적이고 성경적인 양자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를 하고자 할 때 대상관계 이론의 연구자 중에서 Ana-Maria Rizzuto와 Michael St. Claire의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2)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

하나님 이미지는 부모 및 중요한 타자와의 관계가 내면화되어 형성된 것으로 자기 이미지를 반영하며, 정체성 확립과 관계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이미지로서 개인의 사고, 정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 (1) 하나님 이미지의 형성

26) Jared P. Pingleton, "An Integrative Analysis of Psychological and Christian Concepts of Relational Maturity"(Ph. D. diss., Biola University, 1984).

대상관계 이론은 역사적으로 볼 때 Sigmund Freud로부터 시작되었으며, Freud 이후 전통적 정신분석 이론의 한계를 보완하는 이론으로 인정받고 있다. “정신분석학에서 하나님 이미지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단계에서 아버지와의 경험이 하나님 이미지로 투사되어 고착된 것으로 보았다.”<sup>27)</sup> 그러나 Rizzuto는 Freud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 이미지가 부모를 비롯한 중요한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고 보았으며, 유아의 양육 상황 안에서 하나님 이미지가 형성되지만 고착된 것이 아니라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수정되고 변화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Rizzuto는 정서적 수준의 하나님 이미지와 인지적인 수준의 하나님의 개념에 대한 양자의 차이를 구별하였다. 한편 Hanneke Schaap Jonker 외의 연구자들은,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에 대한 양자의 명확한 구별은 유지되기 어렵다. 하나님 개념과 하나님 이미지는 상호영향을 미치며, 하나님 이미지는 하나님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측면 양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sup>28)</sup>고 주장한다. 하나님 이미지는 인지적, 정서적 측면 양자를 다 포함하며,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인 생각과 느낌의 상호작용의 결과 형성되는 것으로 자기 이미지 형성과 직결된다.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이미지는 유아가 자기에 대해 느끼는 내적 감정이고, 유아와 대상들과의 관계가 이미지 형태로 내면화된 것으로 인지적 와 정서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하나님 이미지는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인격화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개념, 정서, 관계, 헌신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로서 부모나 중요한 타자와의 관

27) Ana-Maria Rizzuto, *The Birth of the Living Go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79), 68.

28) Hanneke S. Jonker, Elisabeth H. M. Eurelings-Bontekoe, Hetty Zock, & Evert Jonker.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Dutch Questionnaire God Image: Effects of Mental Health and Religious Culture,” *Mental Health, Religion & Culture* 11(2008): 501-503.

계가 내면화된 것”<sup>29)</sup>이다. 개인은 생애 초기에 경험한 정서적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미지를 형성하며, 그에 따라 자신이 그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을지를 결정한다. 개인의 생의 초기에 경험한 부모와 다른 중요한 타자들과의 초기 관계들이 하나님 이미지를 형성한다. 하나님 이미지는 하나님 및 자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Leroy T. Howe에 따르면 하나님 이미지의 정체는 부모를 사랑하는 의식 밑에 그 사랑을 대항해 공격하고 싶은 부모에 대한 무의식적인 이미지로서 부모에 대한 양가감정이 하나님께 투영된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이러한 양가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한다는 것의 충분한 의미를 놓칠 수 있다. 유신론자들이 하나님께 화가 나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은 양가감정적 하나님 이미지라는 항구에 정박할 가능성이 있다. 양가감정적 하나님 이미지는 부모에 대한 사랑과 분노의 양가감정을 반영하며, 부모에 대한 양가감정이 하나님께 투사되어 하나님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 하나님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이러한 분노의 감정은 억압되면서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섞인 경외심”으로 나타난다. 이 때 개인의 심리사회-윤리영적 성숙은 멈추고 신앙 발달의 위기가 온다. 하나님 이미지는 어떤 관계를 맺을지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중요한 타자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자기감, 자존감, 안전감, 소속감을 유지시키며 자기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 (2) 자기 이미지의 형성

자기 이미지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개념, 자아정체감, 자기감 또는 자아상이라고도 한다. 자기 이미지의 형성 요인은 자기 인지, 자아 존중감, 그리고 자기 효능감 등이며, 자아 존중감은 자아상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평가적인 측면으로 자신을 수용하고 스스로를 존경

29) Carl Ellis Nelson, “Formation of a God Representation,” *Religion Education* 91, no. 1(1996): 31-36.

하며, 자신이 가치있다고 느끼는 감정이다. 부정적인 하나님 이미지에 기인한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는 자아 존중감을 위축시키고 하나님 및 자타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는 자아 존중감을 증진시키며 하나님 및 자타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하나님 이미지와 그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는 응집적인 자기감(sense of self)을 갖도록 돕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정신적 기능을 담당한다. 새로운 자기감을 찾는다는 것은, 그 자기감의 근거를 두기 위해 새로운 하나님의 이미지를 필요로 하는 것”<sup>30)</sup>이다. 새로운 하나님 이미지 곧, 하나님 이미지의 회복이란 결국 궁극적 타자요 긍정적 환경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결과이며, 하나님 이미지의 재이미지화(회복)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자기 이해, 자기 평가, 자기감, 또는 자기 이미지의 재형성과 변화를 뜻한다. 생애 초기 형성된 하나님 이미지의 수정 또는 재형성(변화)은 발달 과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Rizzuto에 따르면 하나님 이미지의 변화는 개인이 형성한 하나님 이미지와 기독교의 하나님 이미지가 통합될 때 일어난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 이미지의 변화(재이미지화)를 심리적인 하나님과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통합’이라는 개념으로 풀었다.

### (3) 성경적-심리학적 하나님 이미지의 통합

“하나님 이미지는 심리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경험에 의해 내면화 되어 의식세계로 표출되는 것이며,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발달과정에서 내면 세계의 경험에 따라 수정되고 변화된다..... 개인이 형성한 하나님 이미지는 기독교의 하나님 이미지와 통합될 때 건강한 하나님 이미지를 형성한다.”<sup>31)</sup> 하나님 이미지 이해에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

30) James William Jones, *Contemporary Psychoanalysis & Religion: Transference and Transcendence*, 유영권 역, 『현대 정신분석학과 종교』 (서울: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133.

31) Rizzuto, *The Birth of the Living God*, 169-180.

추는 Rizzuto는 하나님 이미지의 형성이 부모 및 핵심적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다양한 경험이 내면화된 심리적인 하나님이며,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대화와 정서적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정서적 표상이지만, 고착된 것이 아니라 발달과정에 따라 수정되고 변화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와 같이 Rizzuto는 하나님 이미지 이론을 기독교 신앙의 성숙이라는 개념으로 확장시켰다. 하나님 이미지의 회복은 개인의 삶 속에서 심리적인 하나님과 성경적인 하나님의 분열이 아닌 통합, 삶과 신앙의 괴리가 아닌 합일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중요한 타자인 부모와의 관계가 내적인 하나님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Why’에 대한 이해와 함께 중요한 것은 궁극적 타자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하나님 이미지, 부모 이미지 및 자기 이미지 치유의 가능성과 그에 대한 회복 방안인 ‘How’다.

한편, Michael St. Claire는 개념적인 하나님과 정서적인 하나님 이미지의 통합이 이루어지려면 영적인 갈구와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하나님 개념과 하나님 표상은 개념적인 수준과 정서적인 수준에서 다르다.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은 사고의 의식적 수준에 있는 하나님이요, 표상으로서의 하나님은 어린 시절의 상들, 감정들, 그리고 기억들로 이루어져 있다.....개념적인 하나님과 표상적인 하나님 이미지의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영적 갈구와 자기 성찰, 그리고 이 표상을 재내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sup>32)</sup> 성경적-심리적 하나님의 통합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생각과 느낌의 분열이나 의식과 무의식의 부조화가 아닌 통합과 조화다. 이는 성경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이루어지는 심리사회-윤리영적-신앙적 성숙의 통합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이미지는 생물-심리사회-윤리영적-신앙적 성숙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진단 도구로서 활용 가치가 있다고 사료

32) Claire, *Human Relationships and the Experience of God*, 42-43.

된다.

### 3. 기독교상담 방안

기독교 상담에 있어 진단은 상담의 전 과정의 방향을 결정하며 상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신체-심리사회-윤리영적으로 전인적 진단이 필요하다. 이에 동반의존자의 하나님 이미지 회복을 위한 기독교 상담 방안의 모색을 위해 하나님 이미지 진단의 목적과 의미를 살펴보고 기독교 상담 방안의 목표에 따른 내용 및 단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 1) 하나님 이미지 진단의 목적과 의미

하나님 이미지 진단의 목적과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내담자의 지각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즉, 내담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어떻게 자아상을 드러내는가를 탐색하고, 타락한 인간의 지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고 왜곡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서 내담자에 대한 전인적 평가를 함에 있다. “하나님 이미지의 신학적 진단의 목적은 개인의 부적절한 하나님 이미지(유아적 믿음)가 적절한 하나님 이미지(성숙한 믿음)로 향하도록 돕기 위함에 있다.....하나님 이미지의 신학적, 성경적인 분석과 진단은 삶의 의미의 추구하고 고통이 통합되어지는 그 곳에 고통의 영적 의미를 이루어 낼 수 있으며, 고통의 ‘영적인 의미’는 고통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왜?’ 라는 질문에서 ‘누구와 함께?’ 라는 질문으로 이동시킨다.”<sup>33)</sup>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성경적-신학적 진단의 목적은 고통과 위기 속에서도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점을

33) Daniel Louw, *A mature Faith: Spiritual Direction and Anthropology in a Theolog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Belgium: Peeters Press, 1999), 249, 258.

확립하고 고통에 대한 영적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우며, 부정적인 하나님 이미지가 긍정적인 하나님 이미지로 수정되어 유아적 신앙으로부터 성숙한 신앙으로의 변화를 도모함에 있다. 라이프 스토리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 이미지는 하나님 및 자타에 대한 해석과 관계 패턴을 드러내며, 어떻게 현실에서 성경적 진리를 삶의 문제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하나님 이미지 진단의 궁극적 목적은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가운데 고통의 초점을 ‘왜?’라는 질문으로부터 ‘어떻게?’ 또는 ‘누구와 함께?’ 라는 질문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우며, 삶의 중심축을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이동시키는 영적-신앙적 성숙을 견인함에 있다.

영적 성숙은 하나님과 인간 상호간의 건강한 관계로 맺어진 열매이다. Brian D. Majerus와 Steven J. Sandage는, “영적 성숙을 관계적 관점에서 개념화했으며, 영적 성숙도와 관계적 성숙도, 신앙적 성숙도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sup>34)</sup> 영적-신앙적 성숙은 관계적 맥락에서 이해되며 하나님 및 자타와의 관계적 성숙도를 의미한다. 기독교 상담에 있어 하나님 이미지는 심리사회-윤리영적 관계를 평가하는 진단 도구로서 활용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하나님 이미지 진단을 기초로 동반의존자의 하나님 이미지 회복을 위한 기독교상담 방안의 목표와 그에 따른 내용 및 단계를 생각해 본다.

## 2) 기독교 상담 방안의 목표

기독교 상담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도록 영혼을 돌보는 일이며, 영적 지도요 영적 변화와 성숙을 도모하는 일 곧, 성화를 견인함에 있으며 성화는 기독교적 성숙을 뜻하는 용어다. 동반의존

34) Brian D. Majerus & Steven J. Sandage, “Differentiation of Self and Christian Spiritual Maturity: Social Science and Theological Integration,”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38, no.1(2010): 41.

자의 하나님 이미지 회복을 위한 기독교상담 방안의 세 가지 구체적인 목표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삶에 대한 해석, 의미 및 가치의 변화가 이루어져 과거의 감정적 상처로부터 치유되도록 돕는다. 둘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감정적 상처들로 말미암아 비롯된 현재의 삶 속에서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 자기, 부모 및 세상과의 왜곡된 관계를 인식하도록 돕는다. 셋째, 하나님, 자타 및 부모와의 용서와 사랑의 관계 회복에 따라 동반의존자의 부정적인 하나님 이미지가 성경적인 하나님 이미지로 회복(화해)되는 과정을 견인한다. 넷째, 미래 목표와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고 자기 이미지를 재형성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가도록 돕는다. 곧, 기독교상담 방안의 목표는 동반의존자와 하나님, 자타, 부모 및 세상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기 이미지의 치유, 부모 이미지의 치유, 그리고 하나님 이미지의 치유인 신체-심리사회-윤리영적 성숙과 회복에 있다.

이러한 목표에 따른 기독교상담 방안은 심리적인 면과 영적인 면은 씨실과 날실처럼 서로 밀접하게 얽혀있음을 인식하며, 성경에 근거하여 성경적-심리학적 관점을 모두 만족시키며 양자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신체-심리사회-윤리영적 성숙의 관점과 자원을 아우르며 동반의존자의 하나님 이미지의 회복을 견인하기 위한 기독교상담 방안의 내용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3) 기독교 상담 방안의 내용

동반의존자의 하나님 이미지의 회복을 견인함에 있어 중요한 과정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자타와의 관계 및 부모와의 관계 회복이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안에서 왜곡된 하나님 이미지 형성의 근간인 부모(중독자)를 용서하며, 부모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함에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에서 출발한 용서는 모든 감정적, 관계적

상처를 치유하는 근본적인 힘과 능력이다.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이므로 인간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동반의존자의 하나님 이미지 회복을 위한 기독교상담 방안의 내용은 성경적 자아 정체성의 회복과 그에 따른 용서와 사랑의 관계성의 회복이다. 그 결과는 과거의 감정적 상처 치유와 현재 하나님, 자타 및 부모와의 관계회복을 통해 이루어지는 미래 자기 이미지, 부모 이미지 및 하나님 이미지의 치유와 회복이다. 동반의존자의 하나님 이미지 회복의 내용은 상담적 성경 연구, 회개, 용서와 화해, 낮은 자존감, 자기 가치감, 경계선, 사랑의 회복 그리고 통제적 관계 대신 친밀한 사랑의 관계 회복을 포함한다.

(1) 자아정체성의 회복: 동반의존자의 핵심 문제는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타인의 가치와 평가에 두는 자기 상실에 있다. 따라서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사람의 가치와 평가가 아니라 성경적 관점에 따른 하나님의 가치와 평가에 두어야 하며,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성경적 정체성(창 1-3장; 시 139: 14-18)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하나님, 자타, 부모 및 세상과의 관계성의 회복으로 구현된다.

(2)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선행되는 일은 죄의 회개다(마 17:2). 회개(metanoia)는 단순한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세계관 자체를 변화시키는 표현으로 사고, 감정, 의지, 동기, 태도 및 행동의 변화를 포함한 세계관의 변화다. 동반의존의 죄에 대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문을 열어 삶 전체를 변화시키며 자타 및 부모와의 관계 회복의 근간이 된다.

(3) 자기와의 관계성의 회복: 자기와의 관계 회복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자기와의 관계 회복에 중요한 요소는 자기 용서이다(시 51:17). 자기 용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방식대로

자기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자신을 수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기 모습과의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동반의존자의 특성 중 하나는 완벽주의자로서 통제적이라는 점이다. 동반의존자는 자신이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현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고통과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자기 수용은 자기 모습을 부정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자신의 현실을 용납하고 자기를 용서하며 자신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 수용과 자기 용서는 부모 수용과 부모 용서로 이어지며, 이 단계에서 분노 조절과 용서를 위한 상담 과정은 회복의 결정적인 요소다.

(4) 부모와의 관계성의 회복: 부모를 용서한다는 것은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창조주이자 구원주이신 하나님께서 부모를 선택하셨음을 기억하고 자신에게 일어난 고통스러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을 믿고(롬 8:28), 부모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며 과거의 고통과 상처에 묶이지 않고 과거를 떠나 보내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삶의 의미와 고통이 통합되는 과정으로 부모와의 새로운 관계 회복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 회복은 하나님 안에서 부모와의 경계선의 재설정을 돕고 친밀감을 점차 증진시킨다. 동반의존자는 경계선 정립을 하지 못하여 자신의 경계를 보호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계를 보호하지 못한다. 경계선 설정과 친밀감 회복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경계선이 부족할 경우 자신의 경계선이 쉽게 침범당할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및 타인의 경계선도 쉽게 침범하므로 상호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고 친밀감을 누리기도 어렵다. 하나님, 부모 및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는 동반의존자의 친밀감에 대한 욕구는 외로움과 소외감으로 인한 내면의 외침이다. 타인과의 친밀감은 일시적으로 외로움과 소외감을 달래 주며 낮은 자존감과 낮은 자기 가치감으로 인한 상처를 일시적으로 덮어 주며, 자신이 가치있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잠시 줄 수는 있지만 지

속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타인 또는 부모님과과의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 회복의 근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회복이다.

이상과 같이 동반의존자의 하나님 이미지 회복을 위한 기독교상담 방안의 내용은 정체성과 관계성 회복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노, 용서, 사랑, 경계선 및 친밀감의 회복을 비롯하여 지나친 조종과 통제 욕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조종하시고 통제하시도록 지배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는 영적-신앙적 성숙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독교상담의 실제 현장에서 신체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사람은 심리사회적으로 기능하기 어렵고, 심리사회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사람은 윤리-영적으로도 기능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하며, 내담자의 신체-심리사회-윤리영적 차원의 문제를 순차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이에 동반의존자의 하나님 이미지 회복을 위한 기독교 상담 방안의 단계는 자기 이미지의 진단 및 회복, 부모 이미지의 진단 및 회복, 그리고 하나님 이미지의 진단 및 회복의 순서를 따른다.

#### 4) 기독교 상담 방안의 단계

(1) 자기 이미지의 진단 및 회복: 자기 이미지는 자타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며 자타를 바라보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자기 이미지란 자기에 대한 개념과 느낌을 모두 포함하는 자기에 대한 인지와 정서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마음에 형성된 정신적인 자화상이다. 자기 이미지 회복은 자기와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경험에서 출발한 자기 용서와 자기 사랑이다. 자기 이미지의 변화는 부모 이미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2) 부모 이미지의 진단 및 회복: 부모 이미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및 자타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며 자기 이미지와 하나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동반의존자의 부모 이미지의 회복은 하나님 안에서 중독자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관계의 재정립을 통해 부모에 대한 양가 감정의 치유가 일어난다. 부모 이미지의 회복은 하나님 이미지의 회복을 가속화한다.

(3) 하나님 이미지의 진단 및 회복: 하나님 이미지의 회복은 하나님 앞에서 동반의존적 우상숭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타와 중독자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관계의 회복이며,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과정이다. 그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자타와의 경계선을 재설정하며, 지나친 집착과 희생과 더불어 조종하고 통제하는 관계대신 상호 친밀한 관계의 발전과 회복이다. 동반의존자의 하나님 이미지의 회복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관계 회복이며, 자기 이미지를 비롯한 부모 이미지의 치유와 변화다.

이러한 회복을 위한 기독교상담 방안의 내용과 단계는 첫째, 하나님, 자기 및 부모 이미지의 진단과 과거의 감정적 상처 치유, 둘째, 현재의 하나님, 자신 및 부모와의 관계 회복, 셋째, 미래의 하나님 이미지, 자기 이미지 및 부모 이미지의 회복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지, 정서, 행동을 닮아가며 이루어지는 영적-신앙적 성숙의 과정이다. 이상으로 위에서 논의한 기독교 상담 방안의 내용 및 단계를 도표로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동반의존자의 하나님 이미지 회복을 위한 기독교 상담 방안의 내용 및 단계

|        | 자기 이미지 진단 및 회복   | 부모 이미지 진단 및 회복   | 하나님 이미지 진단 및 회복  |
|--------|--|--|--|
| 과<br>거 | 1. 자기 이미지 진단<br>자기 이미지 그리기/별칭 짓기<br>감정 목록 작성하기   | 1. 부모님 이미지 진단<br>부모 이미지 그리기/별칭 소개<br>감정 목록 작성하기  | 1. 하나님 이미지 진단<br>하나님 이미지 그리기/별칭소개<br>감정 목록 작성하기  |
|        | 어린 시절 자기 그리기<br>-기뻐할 때와 슬퍼할 때  | 부모님과의 추억 그리기<br>-기뻐할 때와 슬퍼할 때  | ‘하나님과 나’ 그리기<br>-감사한 일과 실망한 일  |
|        | 2. 자신에 대한 상한 감정 치유<br>-낮은자존감, 낮은 자기기차감,<br>수치심, 두려움, 불안, 분노<br>-내면의 아이에게 편지쓰기  | 2. 부모에 대한 상한 감정 치유<br>-부모님께 대한 거리감, 분노,<br>적대감, 수치심<br>-부모님께 편지 쓰기                                     | 2. 하나님에 대한 상한 감정치유<br>-하나님께 대한 분노, 실망, 양가<br>감정, 죄책감, 두려움, 적대감<br>-하나님께 편지 쓰기  |
| 현<br>재 | 자기 대화 기록지 작성   | 부모님과 대화 기록지 작성   | 하나님과 대화 기록지 작성   |
|        | 상담적 성경연구 및 묵상기도<br>-롬 12:3 고전 15:10  | 상담적 성경연구 및 묵상기도<br>-고전13:1-13; 마 18:21-35  | 상담적 성경연구 및 묵상기도<br>-눅15:11-24; 요일 4:7-21   |
|        | 3. 자기와의 관계성 회복<br>:자기와 관계회복(자기 이해)<br>-회개, 자기 용서, 자기 화해<br>-자기사랑, 자기수용, 자기주장<br>-선택-책임지기, 동기-태도<br>점검<br>-통제 욕구 내려놓기<br>-역할 연기 및 역 역할 연기 | 3. 부모님과의 관계성 회복<br>: 부모와 관계회복(부모 이해)<br>-회개, 고백, 부모님 용서, 화해<br>-경계선 재정립<br>-친밀감 회복<br>-역할 연기 및 역 역할 연기 | 3.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 :<br>하나님과 관계회복(하나님이해)<br>-동반의존적 죄의 고백과 회개<br>-하나님의 용서, 하나님과 화해<br>-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경험<br>-성령의 능력 덧입기<br>-역할 연기 및 역 역할 연기 |
|        | 자기 사랑 실천하기<br>거절하기-부탁하기-주장하기   | 부모 사랑 실천하기<br>거절하기-부탁하기-주장하기   | 하나님 사랑 실천하기<br>듣기-부탁하기-순종하기  |
| 미<br>래 | 4. 긍정적 자기 이미지 회복<br>-미래 자기 이미지 그리기<br>-미래 비전과 꿈의 회복<br>-미래 비전 활동 계획<br>-실천하기   | 4. 긍정적 부모 이미지 회복<br>-미래 부모님 이미지 그리기<br>-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계획<br>-실천하기  | 4. 성경적 하나님 이미지 회복<br>-하나님 이미지 그리기<br>-부르심의 수용과 회복<br>-봉사 영역 계획과 결정<br>-실천하기  |

### III. 닫는 글

동반의존자의 하나님 이미지의 핵심 문제는 자아정체성의 상실과 그에 따른 의존적 관계성에 있으며, 기독교상담 방안의 핵심은 동반의존적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고 자타와 중독자인 부모를 용서하며,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관계를 회복함에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심리사회-윤리적 성숙을 넘어서는 영적-신앙적 성숙이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경적 하나님과 심리적 하나님과의 화해요 통합이며, 성경적 하나님 이미지의 완전한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성화의 과정이다. 심리사회-윤리적 성숙을 넘어서는 이러한 영적-신앙적 성숙과 변화는 성경과 심리학 양자의 관점에서 통합적 접근을 추구하는 기독교상담적 방안을 요구하며, 이는 궁극적 타자요 궁극적 환경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과 만지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 【 참고문헌 】

- 김병오. 『중독을 치유하는 영성』. 서울: 이레서원, 2003.
- 고병인. 『중독자 가정의 가족치료: 역기능 가정 성인아이 치유의 기독교적 접근』. 서울: 학지사, 2008.
- 김성민. 『분석심리학과 기독교』. 서울: 학지사, 2001.
- 김성민. “하나님 이미지와 원형적 그리스도: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그리스도.” 한국기독교학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24권 (2002).
- 정인숙. “한국문화와 한국인의 관계적 특성으로 인한 부모-자녀 동반의존증에 대한 목회상담적 치유방안 연구”. 박사학위 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2007.
- 최홍석. 『인간론』.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2010.
- 2012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미래창조과학부, 2013).
- “2013년 알코올 중독자 실태 조사”. MBC 뉴스테스크, 2013. 9. 13.
- Banks, Robert. “The Biblical Approach to Community.” *Christian Education Journal* 13, no.3 (2004).
- Bradshaw, John. *Inner Child*. 오제은 역.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 서울: 학지사, 2004.
- Cermak, Timmen L. *Diagnosing and Treating Codependency: A Guide for Professionals Who Work with Chemical Dependents, their Spouses and Children*. Minneapolis: Johnson Institute, 1986.
- Claire, Michael St. *Human Relationships and the Experience of God*. 이재훈 역. 『인간의 관계 경험과 하나님 경험: 대상관계 이론과 종교』. 서울: 한국 심리치료연구소, 1998.
- Cloud, Henry. & John Townsend. *Boundaries*. 차성구 역. 『No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서울: 좋은 씨앗, 2005.
- Cruse, Sharon Wegscheider & Joseph R. Cruse. *Understanding Co-dependency*. 김영희 역. 『중독의 뒷 이해하기』. 서울: 이레서원, 2008.
- Hall, T. W. & Beth F. Brokaw. “Relationship of Spiritual Maturity to Level of Object Relations Development and God Image.” *Pastoral*

- Psychology* 43, no. 6(1995).
- Hemfelt, Robert, Frank Minirth, & Paul Meier. *Love is Choice: Recovery from Codependent Relationship*. 양은순 역. 『사랑은 선택』. 서울: 열린책들, 1992.
- Howe, Leroy T. “Crisis of Belief: An Object Relations Perspective.” *The Journal of Pastoral Care* 14, no.1(1990).
- Jones, James William. *Contemporary Psychoanalysis & Religion: Transference and Transcendence*. 유영권 역. 『현대 정신분석학과 종교』. 서울: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 Jonker, Hanneke S., Elisabeth H. M. Eurelings-Bontekoe, Hetty Zock, & Evert Jonker.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Dutch Questionnaire God Image: Effects of Mental Health and Religious Culture.” *Mental Health, Religion & Culture* 11(2008).
- Louw, Daniel. *A Mature Faith: Spiritual Direction and Anthropology in a Theolog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Belgium: Peeters Press, 1999.
- Majerus, Brian D. & Steven J. Sandage. “Differentiation of Self and Christian Spiritual Maturity: Social Science and Theological Integration.”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38, no.1 (2010).
- Marshall, Tom. *Right Relationships*. 채두병 역. 『깨어진 관계의 극복』. 서울: 예수전도단, 1998.
- May, Gerald. *Addiction and Grace*. 이지영 역. 『중독과 은혜』. 서울: InterVarsity Press, 2005.
- McDargh, John. *Psychoanalytic Object Relations Theory and the Study of Religion*. Lanham, MD.: University of America, 1983.
- Mellody, Pia. *Facing Codependence*.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 2003.
- Nelson, C. Ellis. “Formation of a God Representation.” *Religion Education* 91, no. 1(1996).
- Moon, Gary W. “Spiritual Direction: Meaning, Purpose, and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Professional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30(2002).
- Pingleton, Jared P. “An Integrative Analysis of Psychological and Christian

188 / 복음과 상담 • 제21권

- Concepts of Relational Maturity.” Ph.D. diss., Biola University, 1984.
- Rizzuto, Ana-Maria. *The Birth of the Living Go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79.
- Saur M. S. & W. G. Saur. “Image of God: A Study of Psychoanalyzed Adults.” In *Object Relations Theory and Religion: Clinical Applications*. eds. M. Finn and J. Gartner, Westport, CT.: Praeger, 1992.
- Sperry, Len. *Transforming Self and Community*. 문희경 역. 『목회상담과 영성지도의 새로운 전망』. 서울: 솔로몬, 2007.
- Tripp, Paul. & Timothy Lane. *Relationships: A Mess Worth Making*. 이명숙 역. 『관계가 주는 기쁨』. 서울: 미션 월드, 2009
- Welch, Edward T. *When People are Big and God is Small*. Phillipsburg, NJ.: P & R, 1997.
- Willard, Dallas. “Spiritual Disciplines, Spiritual Formation, and The Restoration of the Soul.”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6 (1998).

## 【 Abstract 】

## A Study on the Christian Counseling Method for the Restoration of God-Image of Codependents

Eun Sook Ahn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 Christian counseling method for the recovery of God-image of codependents. Its contents are; Firstly, this study examines the entity of codependency from biblical perspective with psychological understanding. Secondly, this study understands God-image of codependents which hinders relationships with God, parents, self, and others from biblical view and the perspective of object relations theory. Thirdly, this study suggests a Christian counseling method for the restoration of God-imag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Firstly, the core issue of codependents is the loss of their self-identity and dependent relationships. Its entity is sin and idol worship. Secondly, God-image has been formed by relationship with parents, which gives influence to self image formation. Thirdly, God-image of codependents results in gap between faith and life, which stumbles spiritual maturity. Fourthly, God-image has a value as a diagnostic tool of Christian counseling. Fifthly, a Christian counseling method for the restoration of God-image of codependents is the restoration of self image, parents' image, and God-image, which comes from the recovery of relationships with God as the ultimate important others. It means the restoration of forgiving and loving relationships among God, self and parents in His love and forgiveness, which is spiritual maturity in Jesus Christ.

**Key words:** codependents, God-image, restoration, spiritual maturity, Christian counseling